

지역 소식통

정읍농기센터, 폭염 대비 축산농가 방역 긴장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긴 장마 후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역 관리에 긴장을 당부하며 중점소독을 지원에 나섰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세균·바이러스성 질병과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축사 등 침수 시에는 토양 유래성 질병 발생률이 높고 물웅덩이 등에 모기 서식의 증가로 모기매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보유 방역방제기 2대, 소형방제기 3대와 축협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해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소독 등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역 전담공무원은 여름철 사육관리와 방역요령을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발생 농가 밀집 사육 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축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경기 안산 부경회 고향사랑 장학금

매년 부안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장학금을 기탁해온 안산 부경회(회장 이상수)는 올해도 잊지 않고 부안군에 300만원을 기탁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경기도 안산에 사업장을 둔 부안 출신 경제인으로 구성된 안산 부경회는 2007년부터 12년째 총 48백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여 이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상수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폭우피해 신속한 복구”

## 권익현 부안군수, 간부회의 열고 대처상황 파악 포스트 코로나 신규시책 실현가능성 검토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국·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날 초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및 대처상황부터 살폈다.

권익현 군수는 전 직원이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현재 집계된 부안지역 집중호우 피해건수는 주택침수 10건, 농경지 침·관수 772ha, 소규모 산사태 6건, 공공시설 12건 등 총 32건 772ha이다.

군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인력 148명, 중장비 20대, 양수기 30대 등을 투입해 8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속도감 있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 중장기 국가계획 대응 부안군 미래성장산업인 푸드플랜 구축사업 신속한 추진 등 7가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각 관·과·소에서 발굴한 포스트 코로나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회도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해상풍력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특화단지 조성 등 총 27건(디지털 분야 9건, 그린뉴딜 8건, 사회안전망 10건)의 신규시책이 발굴됐으며 권익현 군수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년간 쌓아온 성장기반을 토대로 민선7기 후반에는 보다 강력한 변화 및 도전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장기 국가계획에 관광형 노을대교, 격포항 확장 상황등도 남방파제 및 선착장 개발 서해안 철도망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및 타당한 논의 개발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안군 미래성장산업인 푸드플랜 사업의 성공여부는 군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장회의, 자택방문의 등에 직접 찾아가 푸드플랜에 대한 현장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며 “각종 민원처리 시 처리과정을 민원인과 충분히 소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시 태인면 소재 정재농장대표 서우현은 12일 동절기 저소득 연탄 난방 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연탄 1만장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 정읍 태인면 장재농장 서우현 대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눔

### 1만장 50가구에 전달키로

정읍시 태인면 소재 정재농장(대표 서우현)은 12일 동절기 저소득 연탄 난방 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연탄 1만장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연탄 1만장은 저소득 연탄 난방 세대 50가구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길어지고 있는 장마철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배송된다.

서 대표는 그동안 선풍기와 한돈세

트, 보행 보조기 등의 물품을 기탁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살펴왔다.

자녀 연말에는 정읍시에서 수여하는 기부유공자 감사패를 받는 등 활발한 나눔 실천을 하며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길어지는 장마로 자칫 집안이 늪처럼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저소득 세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달고 육즙많은 2020년산 고창멜론 첫 출하

### 품질관리 · 상품화로 가격경쟁력 강화, 산지 유통개선 최선

전북 고창군의 2020년산 명품 멜론을 조만간 식탁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선운산농협(김기욱 조합장)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무장 토성 멜론 작목반원이 한자리에 모여 첫 출하 행사를 가졌다.

고창 멜론은 미네랄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고창 멜론을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

특히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멜론 온라인 경매를 진행해 1세트(2덩이)에 210만원이라는 놀라운 낙찰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낙찰자는 “깨끗한 곳에서 농부가 정성껏 기른 최고급 멜론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고창 멜론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상품화로 가격경쟁력 강화와 산지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수확 후 관리와 당도 높은 신선한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도시민들에게 고창멜론의 진정한 가치를 지속적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지친 일상 달랠 힐링 공연 어깨춤 덩실~

### 정읍시립국악단 목요상설 국악공연... 13일 정읍사공원 야외무대

정읍시립국악단(단장 주호종)이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정읍사공원 야외무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랠 힐링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야외공연의 특성상 우천 시에는 취소된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밤에 열리고 있는 국악 상설공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방침이다.

국악단에 따르면 13일 공연은 버스킹식 작은 상설공연으로 전통국악에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대중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공연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변은정 무용단원의 역동적인 춤사위와 전통의 멋이 돋보이는 부채춤을 시작으로 연주단원 강연진, 유동현의 연주곡 '천년화 초소의 봄, 캐논변주곡'과 참곡단원 김지영, 김건희의 정타령, 철갑산 배 띄우네'가 이어진다.

공연의 대미는 국악으로 들려주는 트로트 '나이나'를 공연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목요일 밤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시민분들이 지친 일상에 작게나마 힐링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관객분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사공원 목요 상설 국악공연은 매월 둘째·넷째 주에 개최되는 공연이다.

둘째 주 목요일은 작은 상설공연이란 타이틀로 시립국악단이 소그룹으로 참여해 국악 버전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또 넷째 주 목요일은 큰 상설공연이란 타이틀로 시립국악단 전체와 특별출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정읍사공원 목요상설 국악공연 운영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539-6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